월/요/광/장

김규열

후쿠시마 원전과 리스크 사회

비극의 역사는 반복되는가. 1년 전 원전 폭발로 죽음의 땅으로 변한 후쿠시마는 일본 근대사 초입에 이미 비극의 역사를 경험한다.

이야기는 한 세기를 훌쩍 뛰어 넘어 메이지 신정부 출범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마지막까지 에도막부를 지키려 했던 후쿠시마는 신정부군에 결사항전했다. 이에 야마구치 하기지역을 중심으로 구성된 신정부군이 진압에 나서는데 그 잔혹함이 말로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악취가 진동하는 시신을 유족들이 매장하는 것 자체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잔인무도한 진압이었다.

역사의 패자로 전락한 후쿠시마를 비롯한 동북지역은 이런저런 사정으로 근대화 과정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었고, 계속된 상대적 박탈감에 후쿠시마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통한의 역사를 뒤로하고 대규모 원전시설 유치에 나선다.

그리고 2011년 3월 11일.

그 시절에는 그러했고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후쿠시마는 결과적으로 일본 근대화의 최대의 희생양인 셈이다.

그렇다면, 후쿠시마 원전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현대는 리스크 사회라는 사실이다. 충분한 임상시험을 거치치 않은 신약을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른다. 그러나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 투약을 미룬다면 환자의 생명 또한 보장할 수 없는 리스크에 노출되게 되는 것이다. 헤지 펀드에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는 것은 기대 만큼의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그 위험이 두려워 자금을 놀린다면 자본의 속성인 이윤 창출 기능을 포기해야 하는 리스크가 따른다.

현대사회는 리스크를 적게 하려는 시도 그 자체가 리스크인 것이다. 안전이 위험의 함수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이 현대사회에 있어서 리스크의 역설인 셈이다.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그의 저서 '위험사회'(1986년)에서 리스크 사회의 도래를 예견한 바 있다. '풍요로운 사회'를 지나치게 추구해온 역사는 반드시 리스크 사회를 향해 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다. 산업사회가 내건 목표는 "나는 춥고 배고프다"라는 물질적 빈곤의 개선이었다. 빈곤의 극복이었다. 그러나 산업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인간 호르몬 변형, 그리고 방사선 누출 문제 등 예기치 못한 부산물이 등장하게 된다.

"나는 춥고 배고프다"가 어느 틈엔가 "나는 불안하다"로 바뀌었다. 빈곤을 공유하는 시대에서 불안을 공유하는 세상이 돼버린 것이다. 벡은 현대 리스크 사회의 특징을 다음 3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리스크를 공간적 시간상으로 한정할 수 없는 한정불능, 둘째, 다양한 리스크의 책임을 특정인 혹은 조직에 물을 수 없는 귀책불능, 셋째, 대규모 리스크 피해에 대한 완벽한 보상이 불가능한 보상불능이 그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사고와 관련해서 문책당한 사람을 보지 못했고 피해에 대한 보상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 불행하게도 후쿠시마 원전은 울리히 벡이 상정한 현대사회 리스크의 특징을 비극적으로 시현해준 셈이다.

오랫동안 반원전 운동을 주도해 온 일본의 한 시민운동가는 이렇게 말한다. "원자력발전은 핵반응이라고 하는 비뉴튼적 현상을 뉴튼 물리학에 기초한 기술로 제어하려 하는 원리적으로 모순되는 위험천만한 곡예이며 스캔들이다."

이 분야에 과문한지라 반원전, 찬원전 주장에 쉽게 동조할 수 없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검증되지 않은 과학적 합리성을 내세운 성장론이 혼자 활보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념 없는 정치' '노동 없는 부'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지식' '도덕 없는 상업' '헌신 없는 숭배' '인간성 없는 과학'. 마하트마 간디의 묘비에 새겨진 인간의 7대 죄악이다. 〈광주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설

선거 홍보물 '서울 인쇄' 지역경제 역행

광주·전남지역 인쇄인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고 한다.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후보들이 지역경제를 외면한 채 서울 등 수도권에서 선거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은 최근 정기총회를 열어 타지역에 홍보물을 맡긴 후보자를 대상으로 낙선운동을 펼치기로 결의했다. 지난 18대 총선 때 상당수 후보들이 선거 홍보물을 서울에서 인쇄를 했고, 국회의원이 된 후에도 매년 두차례 이상 발행하는 수만부의 의정보고서 등을 수도권에서 인쇄했다는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거공약으로 발표한 후보들이 이율배반 행위를 한 셈이다. 이들의 반발은 인쇄업이 존폐의 위기를 걱정해야 할 만큼 어려워진 데 있다. 인쇄조합 측은 지난해 매출이 25% 이상 줄어든데다 올해 선거특수를 기대했지만 아직까지 한 건도 수주하지 못했다는 하소연이다.

지역정가에 따르면 후보자 한 명이 선거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쓰는 비용은 4000만~5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한다. 광주·전남 국회의원 지역구 19곳에서 5명씩 경쟁할 경우 비용이 38억~47억 5000만 원에 달한다는 얘기다. 여기에 선거 홍보물을 유권자 수의 10%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도 걸림돌이다.

인쇄업 쇠락에 선거특수마저 사라지면서 문을 닫는 인쇄업체도 크게 늘었다. 지난 2007년 460곳에 달했던 광주·전남 인쇄업체는 현재 250곳에 불과하다. 5년 새 절반 가까이 폐업한 것이다.

홍보물의 역외 유출은 지역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준다. 일감이 없어 폐업하는 업체가 늘면 실직자를 양산하게 되고, 막대한 인쇄 비용이 타지역으로 유출될 수밖에 없다.

지역을 위해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선 후보자라면 적어도 홍보물 만큼은 지역업체에 맡기는 게 예의이자 도리다. 인쇄조합 측이 오죽했으면 낙선운동까지 결의했겠는가.

급증하는 보험분쟁 제도 개선 서둘러라

보험사와 보험가입자 사이에 보험료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보험사들의 고객 확보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보험 가입 절차가 간편해져 가입자가 크게 늘어난 때문이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최근 민사재판 가운데 20%가 보험사와 가입자간 소송일 정도로 보험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보험사들은 가입자가 사소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기 입원, 보험료를 타내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가입자들은 보험 가입때는 사정해서 가입을 유도하면서 보험료를 수령하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반박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보험분쟁이 급증한 것은 보험사들의 과열경쟁으로 업체들이 가입 고객은 최대한 늘리되 보험금 지급은 까다롭게 하는 영업전략을 세워 분쟁을 부추기고 있어서다. 또 최근 2~3만 원의 저렴한 보험료를 내면 중복보장, 연속보장 등이 가능해져 자영업자 등의 보험료 청구가 많은 것도 한 원인이다.

문제는 무분별하게 보험 가입을 유도해놓고 보험료를 청구하면 늑장 지급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보험사에 1차 책임이 있다. 선량한 가입자를 가려내면 그만인데 보험사기 등 불법을 경계해서 그런다는 이유를 들어서야 말이 되는가.

보험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는 보험사기단 등 불법 보험료 수령자들도 각성을 해야 한다. 보험이라는 '풍선 효과'로 인해 보험사가 사기를 당하면 그만큼 선량한 가입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 보험사의 손해는 곧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험사는 힘없는 서민 상대 소송을 남발하지 말고 하자 여부 확인만으로 제때 지급해야 한다. 또 보험약관에 형사처벌 경고조항 삽입, 통합계약정보센터 구축, 보험사기 대비 전문가 양성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당국도 보험사기 등 불법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법조칼럼

다가오는 봄에 대한 단상(斷想)

서애련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 중략 -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초등학교 입학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첫아이의 입에서 애국가가 자연스레 흘러나왔다. 내 손을 꼭 붙잡고 걸으며 목청 높여 애국가를 부르는 모습이 예쁘다가도 다소 생뚱하다는 생각이 들어 미소가 번졌다. 입학식에서의 여운이 남은 듯 진지한 딸에게 웃음을 참고 물어봤다. "애국가 어떻게 알았어?"의 우문에 "나 원래 알았어"라고 딸은 답했다. 아마도 최근 졸업한 유치원에서 가르쳐준 것 같다. 벌써 이렇게 컸나?

그러고 보니 3월, 봄이다. 어제도 눈이 아닌 비가 내렸고 고개를 돌려 달력을 보니 부드러운 연두, 노랑의 봄 색깔로 채색돼 있었다. 지난해 10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변호사로 새 출발을 했는데, 대부분의 처음이 그렇듯 아직은 익숙하지 못하다. 변호사로서의 삶에 적응하느라 지난 1년간 계절은 필자와 무관한 듯 흘러갔으나 겨울만은 그렇지 않았다. 아마도 재판 등으로 사무실 밖을 나설 일이 많아 방한 채비를 하는 번거로움부터 시작해 눈과 빙판길에 대한 사고 우려로 차량 운전이 조심스러워지는 등 생활 속에서의 불편함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날씨가 빨리 따뜻해졌으면 하고 내심 기다리고 있는 터라 봄으로의 진입은 너무도 반가웠다.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때가 되면 싹이 트고 꽃이 피고 녹음이 우거지고 낙엽이 지고 눈이 내리니 약속을 지키는 자연의 순리를 의심하지 않고 그에 따른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올해는 유로존의 경제위기로 세계경제가 위협받는 상황이라고도 하고, 사회적으로는 낮은 출산율, 실업, 고령화, 양극화, 성폭력, 학교폭력, 왕따 등의 문제로 많은 우려와 그 대책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물질문명을 우선에 두는 사고방식 때문이라거나 신자유주의의 폐단이라는 등 그 원인을 찾기 위한 연구와 분석도 분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사람이 더 잘 먹고 잘 입고 더 편안하게 살려고 추구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일들이라고 정리한다면 다소 무식해보일지 모르지만 딱히 틀린 말도 아닐 것이다.

그 답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겠으나 각자 지나친 욕심을 버리며 과장하지 않고 나와 타인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서로 채워주고 또 시간이 필요한 일은 기다릴 줄 아는 자연의 순리를 이러한 문제의 답에 총론과 각론에 반영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항상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아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자연처럼, 내가 맞이한 봄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질서있고 평온하면서도 지속적인 번영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자연도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상기후가 그 증거일 것이다.

올해는 국내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많은 정치지도자들을 새로이 선출된다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조만간 국회의원 선거와 연말 대통령 선거가 예고돼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봄을 자각하는 순간부터 따스한 봄볕을 받으며 가벼워진 옷차림으로 덩달아 가벼워진 발걸음을 내딛는 필자의 모습을 상상하니 절로 봄 노래가 흥얼거려진다. "봄이 오면 산에 들에 진달래 피네, 진달래 피는 곳에 내 마음도 피어~" 〈변호사〉

기고

교권 강화 없이 학교폭력 근절 없다

이동범

3월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됐다. 새학교, 새교실에서 새로운 선생님과 학생들이 희망에 부풀어 올해 한해에 실천할 학습계획과 생활계획을 세우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여기에 선생님들께 덧붙여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교육과정 이수계획 못지않게 생활지도 즉 인성교육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최근에 우후죽순처럼 나타나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최근 국가 차원에서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단위학교에서는 매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하도록 했다.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 안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가해자를 엄중조치한 후 동시에 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와 함께 교사 2명이 담임교사를 맡는 복수담임제 도입을 비롯해 폭력집단의 존재를 파악하는 '일진지표'를 만들어 대처하겠다고 했다. 폭력학생에 대해서는 학생부에 기록해 대학입시에 불이익을 주고 학생들이 신체적 욕구를 발산할 수 있도록 중학교의 체육수업을 늘리기로 했다. 학교폭력을 은폐하려다 발각되면 교장과 관련 교원은 중징계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학교 밖에서는 학교폭력신고 전화(117)를 운영해 신고가 들어올 경우 경찰이 즉각 개입하는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지목된 게임을 규제하기 위해 일정 시간 후 자동으로 게임이 종료되는 '쿨링오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단 이번 학교폭력 근절 대책은 실효성 여부를 떠나 학교폭력이 심각한 범죄라는 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을 높여나간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특히 학교의 책임만 강조했던 과거와는 달리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사회의 책임과 노력을 동시에 강조한 점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학교폭력 근절은 '선생님에게 힘이 실려야 성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가 아이들을 돌보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잡무를 줄인다거나 생활지도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한 연수를 늘리는 것과 같은 구체적 방안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에게 힘이 실려야 성공할 수 있다. 학생지도권 즉 교권이 무너지고 있는데 어떻게 선생님의 힘이 있겠는가? 정부가 내놓은 인성교육이나 학생부 기재, 복수담임제, 일진지표 작성, 피해자를 돌보고 가해자를 선도하는 것도 모두 교사의 몫이다.

엄밀히 말해서 학급 내에서는 다양한 성향의 학생들이 존재한다. 현재와 같은 치열한 점수 경쟁에서는 꿈과 사랑이 넘치는 교실은 이상적 구호에 불과할 따름이다. 내가 잘되기 위해서는 동료를 밟고 올라서야 하는 정글의 법칙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강한 처벌은 일정 부분 예방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안 된다.

학교폭력의 근본적 원인은 성적 중심의 입시정책이 학생들의 치열한 경쟁을 유도했고 그 결과 인성교육이 무너졌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경쟁보다는 소통과 화합을 중시하는 방법으로 입시 제도를 개선하고 교사가 학생들을 밀착 지도할 수 있도록 교권을 강화해 주어야 하고 가정, 학교, 사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학교폭력 근절에 동참해주어야 모두가 바라는 학교폭력 없는 학교가 현실화된다고 믿는다.

〈전 광주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장〉

無等鼓

마녀사냥

'오즈의 마법사'나 해리포터 시리즈는 사람들을 꿈과 모험이 가득한 판타지의 세계로 이끌지만, 마법에 대한 그릇된 상상력이 인간의 잔인성과 결합할 땐 광란의 대학살을 부르기도 했다.

15~17세기 유럽에서는 수십만~수백만명이 마녀라는 죄목으로 화형을 당했다. 희생자 중에는 남자와 어린이도 있었지만 80%가량이 여자였고 45세 이상의 과부가 대다수였다. '마법사 사냥'이 아닌 '마녀사냥'이라 불린 까닭이다.

마녀사냥은 십자군원정 실패 이후 타락한 가톨릭교회가 종교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이단적 신앙을 공격한데서 비롯됐다. 이후 페스트의 창궐이나 대기근, 오스만제국의 침략, 백년전쟁 등 새로운 희생양을 필요로 할 때마다 광풍처럼 몰아치곤 했다.

당시 사람들은 마녀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악마와 계약을 맺어 그 대가로 마력을 사용한다고 믿었다. 죄목도 다양했다. 악마에게 예배한 죄, 빗자루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닌 죄, 우박을 불러온 죄, 농작물을 망친 죄 등등 셀 수가 없었다.

'마녀 같다'는 소문이나 밀고만으로 선량한 사람들이 체포됐고 지독한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당했다. 하지만 자신이 마녀라고 자인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손발을 묶고 물속에 던져 가라앉으면 무죄, 떠오르면 유죄 평결을 내리기도 했다. 죄목이나 처벌 모두 심문관 마음대로여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면제에 대한 강용석 의원의 폭로가 거짓으로 판명난데 이어 '채선당 임신부 폭행' '된장국 물녀' '슈퍼폭행녀'까지 인터넷과 SNS를 통한 무차별 폭로와 비방이 도를 넘어섰다. 사실 확인 없이 맹목적 비난을 쏟아내는 네티즌들의 행태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마녀사냥은 역설적이게도 합리주의와 휴머니즘의 시대인 16~17세기에 절정에 달했다. 우리안에 내재된 광기가 또 다른 마녀사냥을 불러오지나 않을지 염려스럽다.

/정후식 정치부장 who@kwangju.co.kr

개인 자가용 트럭, 이삿짐 운송 영업 문제 많다

형님이 이사를 하게 되어 이사하던 당일 가족들과 함께 도와드리러 갔다. 이삿짐은 트럭 두 대로 싣고 와서 사다리차를 이용해 짐을 올리고, 일부는 엘리베이터로 옮겼다.

이삿짐을 싣고 온 두 대의 차량 중 뚜껑이 있는 큰 차 외에 보조 트럭이 한 대 더 따라 온 건데 약간 이상한걸 발견했다. 큰 트럭은 차량이 노란색 번호판(사업용 차량)이어서 당연히 이삿짐 차량인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지만 보조 트럭은 녹색번호판(자가용 차량)을 달고 있었다. 이런 자가용 차는 개인이 이용하는, 그야말로 개인 자가용 트럭인데 어떻게 사업자 등록을 내어 영업을 하는 이삿짐 운송에 참여하게 됐는지 이해가 안 됐다.

여러 인부들과 함께 열심히 이삿짐을 나르고 있는 상황에서 따질 일은 아닌 듯 해서 그냥 묵인하고 말았다. 그렇다고 형님의 이사 과정에서 어떤 피해나 불이익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 그날 일은 그냥 덮어두고 말았다.

하지만, 만약 이삿짐을 운송하던 도중 큰 사고가 나거나 피해를 당했을 때 그 사고 차량이 영업용 트럭이 아닌 개인 자가용 트럭일 경우 이사를 하는 사람은 피해보상을 못 받을 수 있다. 즉 이런 개인 자가용 트럭은 이삿짐을 나른다든가 하는 영업행위를 하면 불법이기 때문이다.

화물업계가 요즘 불황이라 일거리가 적어서 이삿짐 업체에 싼값으로 들어가 일을 함께 해주는 거야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그게 사고를 냈을 경우 문제가 된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이삿짐 업체와 사전에 계약할 때 반드시 영업용 트럭만 사용하도록 계약내용에 꼼꼼히 적고 확인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로 이사를 가는 집을 일러주기 위해 집 주인이 트럭에 함께 타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 그 트럭이 불법으로 이삿짐 운송에 참여한 자가용 트럭일 경우 보상문제 등이 아주 복잡하고 피해를 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신경 써야 할 듯하다. ▲오선진·광주시 동구 서석동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정 경 부 2200-612 체 육 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 산 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